

# 尹 “과감한 개혁으로 큰 족적” 李 “신군부 단죄 과거사 정리”

<광주시장>

<전남지사>

## 광주·전남 추모 발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22일, 광주 시와 전남도는 시·도민과 함께 애도하기 위해 각각 분향소를 설치했다.

광주시는 광주시청 1층 시민숲에, 그리고 전남도는 전남도청 1층 운선도 홀에 각각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23일 오전 9시부터 26일 자정까지 추모객들을 받는다.

장례기간 동안 시·자치구와 공공기관 등은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제성 행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윤정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애도문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윤 시장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큰 산이 우리 곁을 떠나가셨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150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마음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쏟으셨고 특권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과감한 개혁으로 큰 족적을 남겼다”며 “광주시민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을 통해 답해줬다”고 평

## 시·도청에 분향소 설치

## 문민정부 전직 장관들

## “현대사 큰 별 졌다” 애도

가했다.

이 지사는 “김 전 대통령은 의원직 제명과 가택연금 등 숭한 고초에도 굴하지 않았다”며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독재에 항거하는 국민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 유혈진압의 책임을 물어 신군부 세력을 단죄해 과거사를 정리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영면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슬퍼런 군사독재 정권의 모진 고난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불의와 폭력에 맞선 투사였다”며 “불굴의 의지와 지도력으로 불가능할 것 같던 독재정권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룬 분”이라고 평했다. 이어 “1955년 4월 이승만 전 대

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고 유신 반대 투쟁에 나서는가 하면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탄압을 받을 당시에도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며 “광주민중항쟁을 민주화 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신군부에 게 광주 유혈 진압의 죄를 물은 것은 불행했던 과거사를 정리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 참여한 지역 출신 전직 장관들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순천 출신으로 문민정부 초대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낸 허신행 한복사회포럼 대표는 “지도자로서 훌륭한 덕목을 갖춘 분이 떠나서 안타깝다”고 추도했다.

보성 출신인 박순환 전 환경처 장관도 “한국 현대사의 큰 별이 졌다”며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했다.

문민정부 시절 9명의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이 국무위원에 발탁됐으며, 특히 문민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6명은 모두 전남 출신이었다. 이밖에 이기호 전 노동부 장관(광주), 김윤덕 전 정무2장관(신안)도 김 전 대통령이 발탁한 광주·전남 출신 국무위원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전남 인사들이 되돌아본 YS

## “민추협 공동의장 인연... 열정 넘치고 인간미 많은 분”

### 김상현 새정치 상임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오랜 기간동안 봐왔는데, 인간미 넘치고 정이 많은 분이시다. 참으로 따뜻한 분이셨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현(80) 상임고문은 22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고인과 인연이 어찌 일처럼 생생한 듯 말을 잊지 못하고 긴 한숨만 내쉬었다.

광복, 6·25 전쟁, 4·19 혁명, 3선개헌, 유신 및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정치사의 산증인인 그는 지난 1983년 미국에 거주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신해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이



하 민추협)을 결성하면서 YS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그는 DJ를 대신해 공동의장 권한대행을 맡았었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미국으로 망명했던 DJ가 귀국한 1985년, DJ의 동고동계와 YS의 상동동계가 두 사람을 공동의장으로 해 결성한 민추협은 12대 총선을 계기로 야당을 복원한 뒤 직선제 개헌 운동과 87년 6월 민주항쟁을 주도하며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꺼져갔던 민주화의 불길을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상임고문은 “YS와의 인연하면 당연

히 민추협이지. 당시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됐는데, 일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였고 인간미도 매우 풍부했다”며 “민추협이 해낸 역사적 의미는 대단하다. (YS는) 민주적 동지”라고 말했다.

그는 14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원내에 복귀한 뒤 동고동계(DJ계)에서 활동했으나 DJ 노선을 비판하고 당시 적대 관계인 상동동계(YS계)와 친분을 유지하는 등 독특한 정치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10년 이상 민추협 활동을 하면서 고인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며 “민추협 이후에도 자주 만나 식사를 했는데, 항상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고 회상했다. /이종행기자 golee@

## “민주화운동 함께 한 선친과 40여년 각별한 관계”

### 홍기훈 前 국회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올리면 선친(故 홍남순 변호사)이 절로 생각난다. 생전에 두 분 모두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이네. 진실한 분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차남으로 13대·14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기훈(62) 전 의원은 22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고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두 분이 알고 지냈지 40~50년은 넘을 것”이라며 “고인과 선친의 관계가 매우 각별했던 것으로 기억하



다”고 했다. 그는 “선친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을 알게 됐는데, 성격이 단순하고 명쾌했다”며 “당시 호남에서 고인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았는데도, 선친께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예우를 해 드렸다. 이런 점 때문에 고인이 선친을 진심으로 대 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회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선친을 정외대로 불러 극진한 대접을 해줬

고, 퇴임 후에도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직접 본 것은 대통령 재임시절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친은 DJ계 인사였지만 YS계와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네. 이 때문에 고인과도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고인의 빈소에 들러 조문할 계획”이라며 “김 전 대통령은 (내가) 국회의원 시절 법기도 했는데, 참으로 마음 따뜻한 분이셨다. 비록 선친을 통해 알게 된 분이지만 인간적으로도 따뜻함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 “5·18 기념재단 감사패 받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 정수만 前 5·18 유족회장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서만큼은 커다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정수만 전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22일 김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안타깝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많은 일을 하신 분이네...”라며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그는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오지마을 학교 재건 공사를 마치고 광주로 돌아오던 중 김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정 전 회장은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



로선 최초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세우면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18을 5·18기념일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도 김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였다”면서 김 전 대통령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 전 회장을 비롯한 5월

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지난 2007년 김 전 대통령을 광주로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그의 공로를 기렸다. 당시 5월 단체의 초청을 받아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5월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보니 나의 진심이 이제야 제대로 전해졌다는 생각에 참으로 기쁘다. 5월 단체가 나를 초청해준 의미가 깊이 생각해보자”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 전 회장은 거듭 “김 전 대통령은 5·18에 대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다. 김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김영삼 前 대통령



22일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곡성, 전원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 시멘트 벽돌조
- 1층 단독주택, 2012년 준공, 텃밭있음
- 광주에서 30분 / 금호타이어에서 1분
- 매매-6500만원

###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 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12월말 완공)
- 매매-1억6400만원(조정가)

### 수기동, 오피스텔

- 16층, 29평, 광주천 방향
- 전채수리, 주거겸 사무실, 대형주차장
- 매매-5500만원(일시불조건)
- 보5천만원에 월35만원 포함
- 용자 3천만원 가능

## 싸고 좋은 물건, 추천합니다!

주인직거래  
H.010-6839-5900

### 해남, 전원주택

-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 987-3번지
- 건물 28평(실평), 대지 53평(지분)
- 1층 단독주택, 2013년 10월 준공
- 2차선 도로접, 저운창고, 판매시설
- 매매-6500만원

### 금호리조트/회원권

- 법인, 등기제, 35평, 연 30박
- 분양가 3500만원
- 화순 / 제주 / 충무 / 설악
- 아산스파 / 금호패밀랜드 공유
- 매매 - 2500만원

### 금호동, 근린상가

- 서구 금호동 243-6, 과거 7080자리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701호, 120평, 전망최고
- 매매-6억 5천만원(용3억6천 있음)
- 보5천만원에 월 250만원 포함

# 투자자모임

- ▶ 투자 하실분 / 공동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돈 빌려 주실분 / 제1순위 근저당 설정 연 10% 이자 지급
- ▶ 사무실 같이 쓰실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